

# 나쁜 선례 남긴 삼성전자 노조

## 경제포커스

### 전수용

테크부장



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경쟁 투쟁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버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삼성이 하면 산업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 나쁜 선례를 남겼다. 반도체는 실적 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굳어지면, 업황이 꺾였을 때 투자 여력부터 위축된다. 노조는 또 사실상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데 이는

황금 거위 배 갈라 돈잔치 상상 못할 로또 성과급으로 미래 세대 뭉까지 도둑질 'N% 성과급' 전방위 확산

위험을 감수하고 성과를 낸 조직에 더 많은 보상을 해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 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에 반한다. 적자 사업부나 밤새워 기술을 개발한 사업부나 비슷한 보상을 받는다면 누가 혁신을 위해 땀을 흘리는가. 인재를 떠나고 남은 이들은 무임승차 심리에 빠져 조직이 하향 평준화될 게 뻔하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최대 실적에 기반해 성과급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적은 지금 구성원의 노력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다. 수십만 임직원의 헌신과 수십 년 누적된 기술력, 끊임없는 투자의 결실이다. 당장 성과급 잔치에 급급해 미래 R&D와 시

설 투자에 써야 할 재원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황금알을 독차지하려고 거위 배를 가르는 농부와 같다. 미래 세대 뭉까지 빼앗는 도둑질이다.

파업을 무기로 경영 판단 영역인 성과급을 노사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과 주주 몫인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우선해 나눠 달라는 요구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는 국내 산업계 전체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현대차·HD현대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카카오 등 여러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확산 중이다. 대규모 미래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형 산업들이 모두 노조의 현금 잔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반도체는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이끌었다. 1989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상위 10사 중 6사가 일본 기업이 었다. 당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9%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상위 10사 명단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다. 수직 계열화에 안주해 로직·파운드리 전환에 실패한 것이, 한국·대만 기업이 막대한 투자로 그 자리를 메운 결과다. 지금도 글로벌 칩 전쟁이 치열하다. 대만의 TSMC는 쉬지 않고 앞서 달리고, 몰락한 인텔은 부활을 꿈꾸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한순간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한다. 기업이 생존해야 노동자도 있고, 내일의 투자가 있어야 오늘의 고용도 유지된다.

## 社說

### 삼성 잠정 타결, 봉합 넘어 이제는 원칙 세워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심야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다. 노조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중단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를 22-27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조유의 반도체 파업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한 '봉합'일 뿐이며 우려스러운 대목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노사는 적자를 기록한 사업 부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뤘다.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성과가 없는데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 이번 타결을 계기로 '성과급 갈등'이 국내의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연쇄 확산에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조선, 통신, 플랫폼 등 핵심 업종의 기업들에서는 '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분사 직원들에게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치 급여에 달하는 금액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격차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조 요구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법상 주주총회 고유 권한과 배당 구조를 무력화하는 위법적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은 성과급을 임금이라기 보다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결한 바 있다.

노조의 압박에 밀려 '10년간 한도 없이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겠다'는 잘못된 합의를 한 SK하이닉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 전반에 도미노식 거액의 성과급 요구를 확산시키는 불씨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일반적 노사 분규와 차원이 달랐다. 노조가 요구하는 1인당 성과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10년 치 급여인 7억원 안팎을 매년 받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것은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며 일부 노조가 선을 넘었다"면서 "노동 3권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몇몇의 이익을 위한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틀린 말이 없다.

이제 삼성 노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기업의 장기 성장이나 불황에 대한 대비책 없이 이익의 무조건적인 분배를 명문화하는 일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성과급을 철저히 개인별 차등 보상이나 주식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며 경영진의 고유 권한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정부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지 않게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세워야 한다. 삼성 노사 간 타결이 노조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합리적인 보상 기준 구축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금리 상승 속 가계빚 2000조, 선제적 위험관리 시급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이 199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을 사려는 '영끌'과 대출받아 주식 투자하는 '빚투'가 합쳐진 결과다. 부채의 질 악화가 더 심각하다. 정부 규제도 은행권 대출은 소폭 감소했는데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8조2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작년 분기 증가액(4조1000억원)의 두 배다. 은행 대출을 조이자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다. 증권사 신용 공여액도 7조3000억원 급증해 작년 분기(3조3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9%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금리 상승의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9000억원 늘어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오르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채권 금리는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9년 만의 최고치다. 미 금융권에선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인 10거래일 연속 44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한 여파로 8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7200대로 떨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00원을 넘었다.

모두가 글로벌 금리 인상과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무리한 빚투와 영끌을 자제하고 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도 가계 대출 총량과 비은행권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 대통령이 외국 수반 체포 언급, 외교 언사로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에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고, 국제 활동가들이 배를 타고 가자지구를 향하자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나포했다. 억류자 중에는 한국인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이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가) 체포 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도 했다. ICC는 2024년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ICC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 지도자를 실제 체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ICC는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다수 국가가 푸틴을 비판할 뿐 대통령에 직접 푸틴 체포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국가 정상이 상대국 정상에게 체포 영장 집행을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은 ICC의 네타냐후 체포 결정에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이스라엘과 단교라도 불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준다.

외국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고 그의 안전 송환을 촉구하는 것은 통상 외교 채널을 통한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한국과 FTA까지 맺은 우호국이다. 이런 나라와 외교 채널로 한국인 송환을 협의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상대국 수반 체포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비외교적 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사실과 다른 동영상 올리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에 나서면서 외교 갈등도 불거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아닌가.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비판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 이미지의 아라비안 舞飛 나이트 [11]

### 인류 존재의 유일한 불쏘시개

표도로 도스토옙스키가 창조한 '백치'의 미시진 공작은 아름답고 선한 인간이지요. 타락에 절은 세상에선 찾아보기 어려울 만치 자비롭고 순수하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뜨겁게 공감하니까요.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Small Things Like These·사진)'의 석탄 소매상 빌 필름도 미시진 공작의 성정을 가졌습시다.

때는 1985년 크리스마스 시즌. 무대는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 수녀원에 딸린 막달레나 세탁소에 석탄을 배달하러 간 빌이 창고에 감금된 소년을 발견합니다. 구조엔 실패하지만 빌이 그녀 이름 '세라'를 기억에 새깁니다. 작취당하는 미혼모들의 존재를 은폐해야 하는 수녀원장이 빌에게 큰돈을 주

여줍니다. 이걸 받아든 아내가 입단속을 합니다. "더 나은 형편으로 살려면 모른 척 눈감아야 하는 일도 있는 거야." 고뇌에 찬 밤을 지새운 빌이 묘비 앞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 세라 필름의 비석입니다. 학대와 강제 노역이 일상이던 세탁소에 남겨지기 전 미혼모 세라와 어린 빌을 거둬준 자비로운 노부인을 그가 자주 그리워합니다.

"연민은 인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법칙이다(Compassion was the most important, perhaps the sole law of human existence)." "백치"에서 미시진 공작이 통찰하는, 연민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부조리와 탐욕이 넘치는 세상에서 인류의 파멸과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비결



로, 뜨거운 변화를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연민이니까요.

용기를 내는 빌. 그가 수녀원 몰래 세라를 구해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밤거리 이웃들이 힐난하는 시선으로 수군댁니다. 조용히 었드려 살아온 그들이자 빌이 수녀원장과 척지면 자신들까지 많은 걸 잃게 된다고 경고하는 눈빛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롭고 평온한 표정의 빌이 온기 가득한 집 안에 세라를 들입니다. 원작은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의 동명(同名) 소설입니다. 작가·외화번역가

## 기업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 슈퍼 갑 고액 연봉 노조에게도 물어야

경제와 증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자신들이 한국경제의 《병목》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교섭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 반도체- 자동차 양대 성장엔진 꺼지면?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정당한 보상과 근로조건 개선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원들은 고액 연봉자들이다. 더구나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는 방식의 《최후통첩》식의 압박은 결국 노동운동 자체의 정당성마저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게 갑질 아니면 어떤 게 갑질인지 모르겠다. 더 심각한 건 파업 분위기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번질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파업 도미노》다. 도미노의 무서움은 연쇄 붕괴에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국 수출의 양대 축. 그 두 축에 동시적으로 노동 공급망 위기가 타치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두 성장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노사 간 이해충돌을 넘어, 수천 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운명, 수출 경쟁력, 코스피, 국민연금, 심지어 국가 신용도까지 연결된다.

파업은 국가 경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 언급은 시의적절하다. 물론 긴급조정권이 남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거대 고액 연봉자 노조는 슈퍼 갑

병목현상을 이용해 공급망을 위협하면 《공급망 무기화》라고 비난받는다. 실제로 특정 국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원유 생산량을 줄이면 국제사회는 이를 《무기화(weaponization)》라고 부른다. 지금 한국 내부를 보라. 전략적으로 노동 공급이 통제되고 국가 경제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 노동 공급망 《무기화》가 아닐 수 없다.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건 생각보다 작은 빙하였다. 문제는 빙하의 크기가 아니라 충돌 지점이었다. 한국 경제가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과 제조업 몇 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핵심 산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바로 《노동 공급망》이 존재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병목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꼽힌다. 한국은 어쩌면 《노동 공급망》이 더 위태로운지도 모른다.

그동안 기업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이제 거대 고액 연봉자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거대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 간 교섭력 평형을 위해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5월 20일 게재 되었습니다.



### 삼성전자 노조의 노동 공급망 《무기화》

양대 병목현상이 한국경제 위협 중 노조 파업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긴급조정권 즉각 발동하라

### 세계경제의 거대 3중 압박

《병목현상》이란 가장 좁은 지점의 체증이 전체 흐름을 막아버리는 현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특정 요소 공급이 막히면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진다. 공급망(supply chain)이 중요한 이유다. 반도체 칩이 부족하면 첨단 장비를 만들 수 없다. 해협 한곳이 막히면 세계에 공급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현재 《거대한 삼중 압박》 속에 놓여 있다. 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를 흔들고 있다. ② 미중 관세전쟁은 세계 교역량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③ 지정학적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엔 모두 치명적인 변수들이다.

### 양대 공급망 위기 ... 밖에서도 안에서

그동안 한국은 《공급망 위기》라는 말을 지겨울 정도로 써왔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부품을 조달할 수 없고, 해협과 항로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며,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첨단산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울고불고했다. 현재는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 삼성전자 노조는 더 이상 '울이' 아니다. '갑'이다. 그것도 '슈퍼 갑'이다. 고액 연봉 노조의 이윤 배분 요구는 '슈퍼 갑질'이다. © 챗GPT

차량 5부제에 이어 차량 2부제까지 하는 중이다. 이 와중에 고액 연봉자들이 자신들의 교섭력 우위를 이용해, 한쪽 잡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어떻게?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진짜 병목은 바로 《노동 공급망》이다. 교섭력 《슈퍼 갑》 노조에 의한 노동 공급 통제 때문이다. 즉, 노조 파업에 의한 《국내 생산라인 봉쇄》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단순한 임금협상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코스피를 시원하게 빼보자"는 발언을 보면 안다. 자신들의 파업이 한국의 실물